

# 1990년대의 VAN 서비스와 국제무역 : 전망과 쟁점

## 目 次

- I. 머리말
- II. 技術革新을 基礎로한 比較優位의 등장
  - 1. 範世界的 貿易
  - 2. 範世界的 競爭
  - 3. 範世界的 障壁?
- III. 世界貿易에서 VNAs 對 便向主義
- IV. VAN 서비스, 企業, 政府
  - 1. 所有權 : 새로운 定義가 必要한 낡은 概念
  - 2. VAN 서비스 : '收斂' 努力을 위한 選好된 目標?
- V. 結論 - VANs '分割된 範世界化' ?

## I. 머리말

오늘 서울에서 만난 많은 전문가들과 정부관리들은 세계 곳곳에서 우루과이협상안을 타결짓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이협상은 1990말쯤 브뤼셀에서 타결될 전망이다. 이 다자간 협상의 뉴라운드도 그 범위나 예상되는 결과에서 과거 협상(딜론, 케네디, 도쿄라운드)과는 매우 다르다.

이러한 뉴라운드는 1982년 11월초에 제안되었지만 GATT 협상분야에 서비스를 포함시키는 것을 몇몇 국가가 주저하였기 때문에 1986년 8월까지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푼타델 에스트 선언<sup>2)</sup>에 담겨진) 최종적인 타협안은 (재화와 서비스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이를 GATT의 주관하에서 개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간검토모임(1988년 12월 몬트리

올) 후에 농업과 같은 구래의 부문은 이 라운드의 핵심에 남게 될 것임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서비스분야에서의 중요한 쟁점은 몬트리올 회의에서 수용되었고, 이 중 일부는 VAN 서비스에 직접 관련된 것이다. 소위 '몬트리올 텍스트<sup>3)</sup>'라는 것은 망접속의 개념을 언급하고 시장접근이 생산자의 선호된 전송양식( preferred mode of delievery )에 대해서 보장되어야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UR의 최종적인 합의안에서 전기통신서비스(그리고 VAN 서비스)의 처리는 특히 중요하며 많은 부문별 협상에 대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몇몇 주요 무역파트너들이 다음 라운드의 쟁점<sup>4)</sup>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고 기존의 GATT 체제와 경쟁 및 지적소유권같은 새로이 등장하는 문제간의 점증하는 불충분함을 인식하고 이를 쟁점화하기 시작함에 따라 1988년 12월이후에 UR 협상은 새롭게 전환하였다.

새로운 유형의 다자간 논쟁은 실제 분석가들사이에 보다 심도있는 토론의 결과이나 그들은 자신들의 이론적 설명력쇠퇴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기술, 무역, 성

1) UNCTAD (제네바)의 사무차장 특별고문. 여기에 제출된 의견은 저자의 것으로 반드시 UNCTAD의 견해를 반영하지는 않는다.

2) Annex 1 참조

3) Annex 2 참조

4) 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를 창설하자는 제안은 1947년의 무산된 ITO를 기억하는데 이것은 하버나 현장에 기초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제안은 캐나다와 이탈리아에 의해서 FOGS ( Functioning of the GATT System )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장간의 연결은 현재 기존 이론의 중요한 재평가 대상이다. 정보집약적 서비스는 그러한 재평가의 핵심이다. 국제서비스 거래는 많은 이론적이고 현실적인 가설을 제기한다. 특히 VAN 서비스는 비교우위에 대한 전통적 접근(H-O-S)에 대한 새로운 도전의 근거이다. 1990년대의 무역정책과 무역형태는 점차 VAN 서비스의 영역에서 달성한 현재와 미래의 발전에 의해서 영향받을 것이다.

이 논문은 VAN 서비스가 미래의 국제무역관계에서 작용하는 주요한 힘에 관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개괄하려는 것이다. 그러한 힘은 적어도 네가지 방향을 통해서 국제무역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1) 국가무역에 대한 기술혁신의 역할, 2) 무역문제의 편파주의(Unilateralism) 경향, 3) 기업과 정부의 역할 변화 4) 지역주의를 동반한 국제화추세.

## II. 技術革新을 基礎로 한 比較優位의 등장

국제경제관계의 현재의 재구조화는 '범세계화'(globalization)라는 과정에 의해서 지배되고 대체로 조건지워진다. 이 개념은 아직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라는 보다 전통적인 과정과는 아주 다른데 이것은 자본의 중심적인 역할과 거대다국적 기업의 출현에 의해서 특징지워진다. 범세계화는 정보와 네트워크 그리고 전략적 동맹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경제가 비교우위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식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기술혁신의 개념에 전략적 역할을 부여한다.

### 1. 範世界的 貿易

전통적인 무역이론(리카르도가 주창하고 헤셔 이론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후에 사뮤엘슨이 H-O-S 이론으로 완성)은 비교우위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의 전통적인 공식화에서 이 개념은 국제적 전문가가 국제적 요소가격의 결과적인 균등화를 통해서 집합적인 국제적 적정화뿐만 아니라 적정한 국가무

역형태가 될 것이라는 결론을 구체화하였다.

그러나 비교우위이론의 현대적 표현(즉 H-O-S)은 범세계적 정보시대에 분명히 비현실적이 된 다수의 단순화된 가설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들어 일국내 생산요소들의 완전한 이동과 국가간 이동의 불가능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한 가정의 결과 비교우위는 자연적 요소부존에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한 국가의 지리, 기후, 지질과 오랜 역사부터로만 오직 전수받을 수 있을 뿐이다.

분명히 정보가 중요한 생산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국제무역흐름에 이 리카르도류의 설명을 덜 수용할 수도 있다. 오늘날 비교우위는 자연요소부존에 의해서 덜 결정된다. 생산요소가 점차 국제적으로 이동됨에 따라서 비교우위는 점점 만들어지고 획득되어진다. 경쟁력이 토지, 기후, 자연자원보다는 기술, 화폐, 정보에 의존한다고 할 때 국가와 기업은 'PAR'(produce, attract, retain)전략을 통해서 경쟁한다.

이것은 국제경제관계에서 뿐만아니라 국가경제에서 기업의 역할의 일련의 근본적인 변화의 한 부분이다. 기업은 더이상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화시키는 즉 이윤을 포함한 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기전에 기업이 자신의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에 가치를 부가하기위해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블랙박스'로 간주되지 않는다.

첫째, 기업은 많은 서비스(상향과 하향)를 자신의 생산에 통합시키는 것을 배웠다.

둘째, 기업의 경쟁력은 점차 하나 혹은 수 개의 생산요소를 소유 이용하는 능력보다는 산재되어 있는 생산요소들을 탄력적으로 결합시킬수 있는 능력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셋째, 빠르게 범세계화하는 세계경제에서 많은 기업들의 수익성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결합시키는 가능성의 직접적인 함수이다. 그러한 경우에 항구적인 기술혁신주체로서의 능력이 경쟁력유지를 위한 유일한 지속적인 비결로서 보인다.

이러한 세가지 새로운 특징들은 새로운 유형의 네트워크의 출현, 즉 생산이 점차 결합의 성격을 갖는 조직

—공급자,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최종 생산물의 질을 계속 향상시키는데 참여하는 조직의 출현으로 수렴되고 있다. VANs와 VAN 서비스는 그러한 전략의 핵심 요소를 나타낸다.

## 2. 範世界的 競争

국가와 기업들이 범세계적으로 경쟁함에 따라서 그들은 또한 점점 더 기술집약적 전략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있다. 그러나 기술혁신은 과거의 것과는 다르다.

첫째, 경쟁적 기술혁신은 불연속적인 과정이라기 보다는 항구적인 과정으로서 수행되어야 한다. (기술혁신에 관한 Abernathy - Utterback 모델<sup>5)</sup>처럼) 대부분의 기술혁신모델은 기술혁신이 우선 다수의 생산물이 다수의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고려한다. 두번째단계에서 적정생산물이 나타난다. 세번째단계는 적정과정의 출현에 이른다. 어떤 저자들은 재화의 생산에서 서비스(특히 정보집약적 서비스)의 도입이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새로운(즉 연속적인) 기술혁신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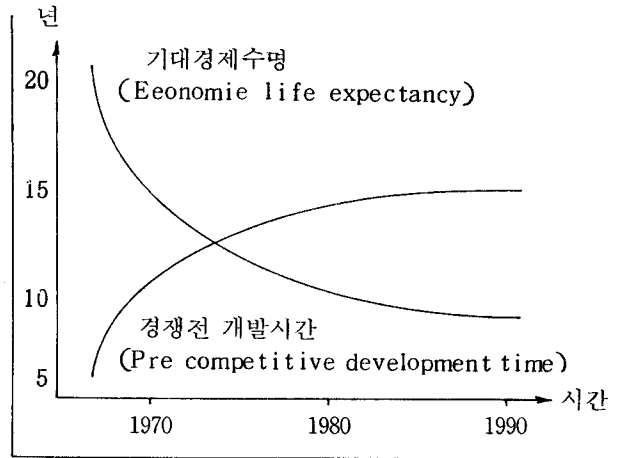
둘째, 기술혁신은 더이상 생산물과 생산과정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점점 관리적이고 조직적인(생산물보다는 정보중심적인) 측면이다. VANs와 VAN 서비스는 기업들이 즉시배달체계 혹은 전세계/24시간 체계(가령 항공예약시스템<sup>7)</sup>이나 선물시장)를 개발하기 시작할 때 핵심이 된다.

## 3. 範世界的 障壁?

기술혁신은 연속적이고 누적적인 과정으로서 관리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개도국-신규진입국, 모방국에게 새로운 유형의 장벽이 되고 있다. VANs과 유용한 VAN 서비스의 국내적 유용성과 우월성은(적어도 부분적으로) 그러한 장벽을 약화시켜줄 수 있다. 기술적 탄도<sup>8)</sup>가 집중하는 가운데 새로운 진입자가 모방적 전략을 적용할 가능성은 위에서 언급한 현대 기술혁신의 특징에 의해서 상당히 감소되고 있다. R&D 활동이

더 많은 자본과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함에 따라서 기술혁신의 기대경제수명은 계속 감소되고 있다. (〔圖 1〕 참조)

〔圖 1〕



위험영역(두 곡선이 교차하는 부분의 오른쪽)이 넓어지기 시작함에 따라 위험크기는 계속 증가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sup>9)</sup>

- R&D 비용은 계속 증가한다. 단순한 새로운 종류의 공업효소를 만드는데 1억달러가 필요한 반면 새로운 세대의 보잉747 혹은 새로운 ISDN 체계를 개발하는데 약30억달러가 든다.

- 제품주기는 계속 줄어든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2-3년, 의류산업에서는 6-8개월이다.

그러한 위험부담이 집중하는 환경에 직면하여 기술혁신적 기업들은 막대한 R&D 프로젝트의 비용과 위험을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전략적 동맹을 맺으려고 한다. 그러한 '보험'은 기술이 점점 더 포괄적으로

5) Abernathy and Utterback (1978) 참조

6) 이중에서 Lanvin (1990) 참조

7) Bressand (1989 a)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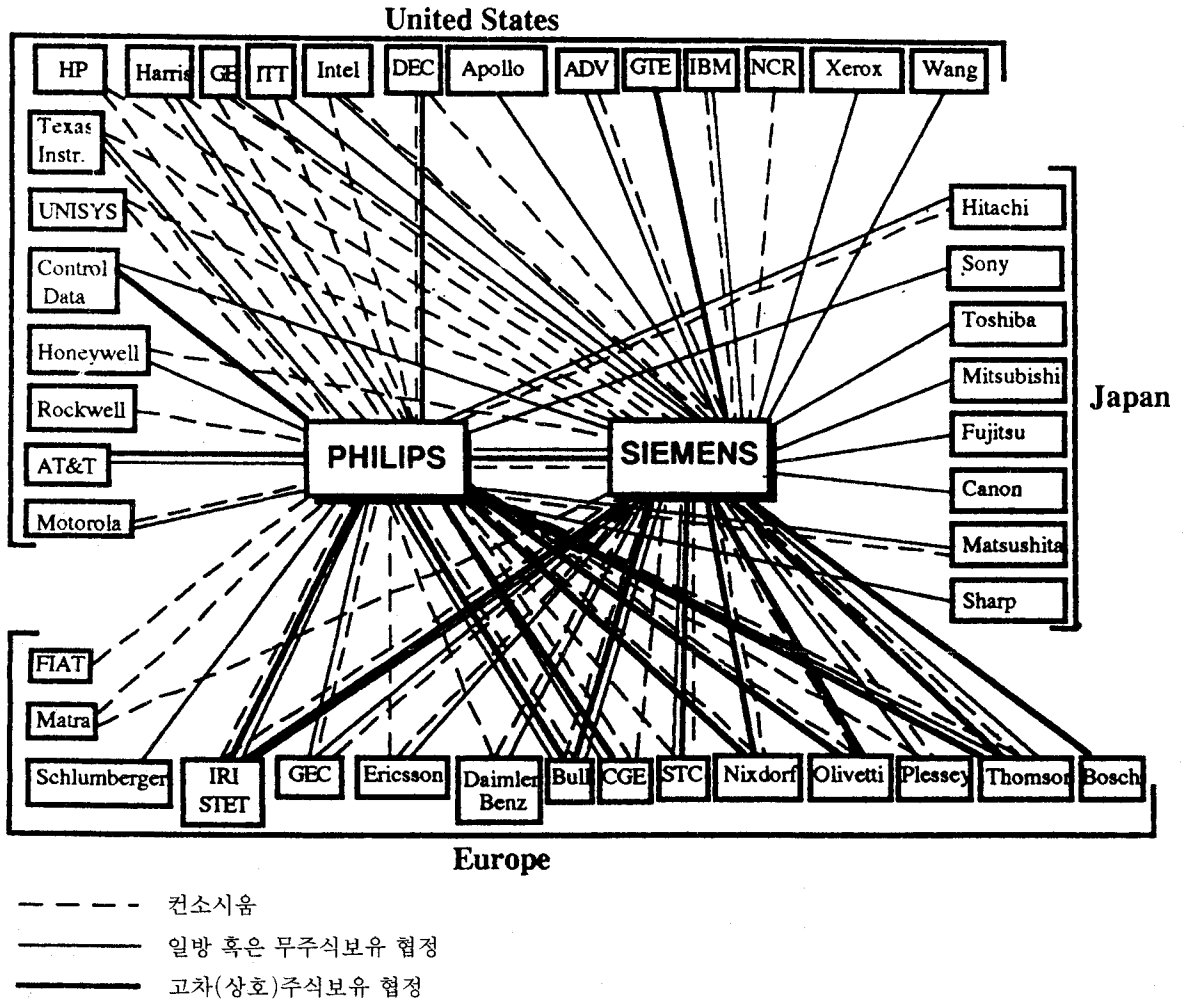
8) 기술적 탄도는 기술혁신의 '누적적' 측면을 말한다. OECD 'TEP' 과제의 최종보고서 뿐만 아니라 1991년중에 출판될 Chesnais (1986), Ostry (1990)를 보라.

9) [圖 2]뿐만 아니라 이후 그림은 Petrella (1989)로부터 인용한 것이다.

되기때문에 더욱 매력적인데 이는 정보기술의 경우 명백하다. 그러한 동맹의 특징중의 하나가 원래는 협력자라기보다는 경쟁관계였을 기업들을 연결시키는 것

이다. 이런 유형의 네트워크중의 한 예가 아래 [圖 2]에 나타난 Philips와 Siemens의 경우이다.

[圖 2] Philips와 Siemens의 제휴



이런 유형의 현상이 기술집약적 시장의 잠재적 신규 진입자가 직면하는 장벽을 더욱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점증하는 많은 예에서 '망에의 의존'은 시장접근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결코 구성원들간에 균등하고 공정한 협력을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해야만 한다. 개도국들은

특히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그러한 전략적 동맹(망에의 의존)을 고려해서는 안된다. 특히 '선택적 바이패싱'<sup>10)</sup>은 정보집약적 망에서 전통적인 중심주변유형의 관계를 재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망 의존적 활동

10) 이 개념은 Lanvin (1990)에 더 자세하게 전개되어 있다.

에서 어떤 구성원들은 본질적인 탈출비용의 존재로 자신이 구속받을 수도 있다.<sup>11)</sup>

신규진입자가 그러한 '망에의 의존'으로부터 공평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달매체(망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시설)와 정보를 통제하는 충분한 독자적인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가능하다.

### III. 世界貿易에서 VANs 對 便向主義

전후 국제무역에 대한 전체적인 제도적 조직은 1목적 1방법, 즉 자유무역과 다국간주의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후에 어떤 경향들은 반복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서 마치 자유무역이 국제무역체계에 갑자기 부과된 것처럼 일부는 한쪽이 다른 쪽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 같았다. 반대로 진정한 다국간 구조는 자유무역으로의 공평한(그래서 지속적인) 이행을 보장할 유일한 길로 남아있다.

지난 10년은 비관세장벽인 소위 '회색빛 조치(gray measures)'와 VERs와 같은 쌍무적 협상이 확산됨에 따라서 GATT 체제가 상당히 약화된 시기였다. 무역 마찰이 다국간화되고 기존 GATT 장치가 점점 더 체계적으로 우회되어 졌다. 이런 관점에서 UR은 활기찬 도전과 중요한 기회를 나타낸다.

도전은 국제공동체에 대해서 GATT를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강화시킨다. 이것은 하나의 제도로서의 GATT(혹은 그 후계자)가 상당히 더 넓은 권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생산요소(재화, 사람, 자본, 정보)들이 국경을 넘어 결합될 수 있는 방법(이것은 중요한 미시경제적 관점을 필요로 할 것이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들 요소들의 국제적 이동에까지 미쳐야 한다.

기회는 많은 전략적부문에서의 새로운 경쟁자들의 지속적인 출현에 있다. 주요 투입물의 원천이 다양화 되면 될수록 국제무역에 대한 다자간 접근에 대한 필요는 점점 더 커지고 일국 독자적 행동은 점점 더 약화된다. 생산이 계속 국제화됨에 따라서 그리고 부가가치가 점차 공유된 과정으로부터 나오에 따라서 협조적

태도는 회복되고 있다.<sup>12)</sup>

정보와 기술의 공공재적 측면때문에 정보와 기술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 VANs이 확산되고 엮여지기 시작함에 따라서(추측컨대 상호연결) 그들은 항구적인 대안(선택된 전송양식?)임을 의미하고 다른 무역 루트는 차단될지도 모른다. 이것은 특히 서비스분야에서 중요하다. 정말로 서비스의 국제무역이 많은 개도국들에게 상품수출의 약속함으로써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그러나 보호주의는 새로운 경쟁자들이 성공한 어느 곳으로나 이동한다는 것을 역사는 알려준다. VANs은 많은 생산물과 활동들에 공통된 생산요소, 즉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에 대하여 VANs은 유효한 보호수단임을 의미한다.

### IV. VAN 서비스, 企業, 政府

점증하는 많은 거대기업들이 범세계화됨에 따라서 국가의 상대적인 우월성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범세계화의 현상은 대체로 정보기술의 진전과 전세계적 망의 구축에 힘입었기 때문에 VNAs와 VAN 서비스는 분명히 이러한 중요한 변화에서 핵심이다.

그러나 많은 분석가들과 관측통들이 강조하였듯이<sup>13)</sup> 여기서 정말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어느 한쪽 기업의 상대적인 역할과 다른 한쪽 정부의 상대적인 역할이 아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진정한 변화는 기업과 정부간의 전략적 동맹의 중첩화이다. 특히 무역정책은 거시경제적 왜곡이 계속됨에 따라서 미시경제적 요소에 점

11) Ernst & O'Connor (1990) 참조

12) 이주장은 희망적 관측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현재 경제상태는 반도체의 경우 예처럼 충분히 효과적이다. 1980년대 후반에 거의 모든 개도국들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수출할 때 더 높은 보호장벽에 부딪혔다. 명백한 예외는 아시아 NICs인데 이들국가들은 (미국 컴퓨터산업처럼)자국의 몇몇 수출산업이 매우 필요로하는 (반도체처럼)중간재 투입물에 전문화하려고 애써왔다. 이러한 현상의 자세한 분석은 UNCTAD (1989a)를 보라.

13) 예로 Petrella (1990)과 Ostry (1990) 참조

점더 집중될 것이다.<sup>14)</sup>

그러한 환경에서 정보를 수집, 선별, 해석, 통제하는 범세계적 경쟁자들의 능력이 더욱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sup>15)</sup> 많은 경우에 그러한 능력은 국가들 뿐만아니라 기업들의 경쟁력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것이다. 경쟁력있는 기업은 점차 외부적(SWIFT, SITA) 등 외부적이든 자신의 정보망의 효율성에 의존할 것이다.

### 1. 所有權 : 새로운 定義가 必要한 넓은 概念

정보는 종종 '비경쟁재(non-rival good)'로 묘사된다. 이것은 값비싼 철을 한 중고자동차와 반대로 한 단위의 정보를 누군가에게 팔자마자 곧 정보를 소유하는 것을 그만두지 못한다. 이역설은 소프트웨어보호나 더 일반적으로는 지적소유권과 같은 분야의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정보망에 관한한 소유권논쟁은 특히 복잡하고 중요하다. 많은 VANs 이(그들이 설립한 기업이나 민영화를 통해서) 사적으로 소유되기때문에 기본(전화)서비스는 대체로 정부소유로 남아있는 반면에 사적 공적 부문간 갈등은 증첩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혼합경제의 전통을 갖는 그러한 국가들은 중요한 경험을 공유할 것이다.

### 2. VAN 서비스 : '收斂' 努力을 위한 選好된 目標 ?

국가전략과 국제전략간 뿐만아니라 부문과 국가목표간에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의 모든 부분이 특히 규제분야에서 수렴에 대해 집중하는 필요를 느끼고 이를 가시화할 것이다. VANs 과 VAN 서비스는 적어도 4가지 주요이유로 '선택된 목표'일 것이다.

가. 범세계화는 상호연결성을 요구한다 : 범세계적으로 수용된 규범과 표준의 확립이 VAN 서비스를 포함하여 모든 정보집약적인 활동에 대한 향후국제적 우선순위목록에서 최우선이라고 생각된다.

나. 정보는 다음시대의 전략적 투입물일 것이다 : 국제공동체가 국제경쟁법(즉 미시경제적 조정)의 내용들을 결정할 필요성을 좀더 절실하게 느낌에 따라 기

업들은 더 자유스러운 국제정보이동의 사고를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기술의 이전에 대해서 뿐만아니라 지적소유권에 대한 개선된 국제적 틀을 필요로 할 것이다.

다. VANs 과 VAN 서비스는 기술혁신의 첨단이다 : 국제적 경쟁력이 점점더 기술혁신능력에 의존하는 세계경제에 있어서 이특징으로 VANs 과 VAN 서비스는 국가무역정책이 수립되고 수행될 때 '전략적 활동'의 목록상의 최우선으로 만든다. 무역상대가 각자 무역정책을 조정하려고 시도할 때 VANs 와 VAN 서비스는 주목받게될 것이다.

라. 전기통신 독점의 해체는 가속화될 것이다 : 이것은 분명히 EDI 나 전자메일서비스 혹은 데이터베이스서비스와 같은 많은 VAN 관련분야에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것이다. 공정한 경쟁은 충분한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확보되지 않을 것이다. 많은 보장조항(예를 들어 프라이버시)이 확립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V. 結論 - VANs '分割된 範世界化' ?

범세계화의 계속적인 과정은 세계경제에서 개도국들이 더욱 바람직하게 통합될 가능성을 나타낸다. 동시에 범세계화는 '무역블럭'의 출현을 촉진함으로써 세계경제를 더욱 분할시킬 위험을 갖는데 이것은 국제무역의 가장 생산적인 부분으로부터 대부분의 개도국을 배제시킬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VANs 와 VAN 서비스가 문제가 된다 : 국제공동체가 이분야에서 달성할 수 있는 것 혹은 달성할 수 없는 것은 많은 다른 분야의 움직임에 대

14) 이 요소는 '기술과 경쟁력'에 관한 OECD - TEP 회의 (1990. 6, 파리)의 토론의 핵심이다.

15) 경쟁력원천에 관한 '새로운 이론'의 가장 대중적인 것중의 하나를 사용하면 Michael Porter의 다이아몬드에서 정보가 하는 역할을 쉽게 추적할 수 있다. Porter (1990) 참조.

한 강력한 실례가 될 것이다. '선택적 건너뛰기 (SELECTIVE BY - PASSING)'와 '일방적이고도 즉흥적인 수출(DISCRETIONARY EXPORTS OF VOLALITY)'에 의해서 특징지을 수 있는 다층화된 세계경제의 위협은 보다 허약한 경제에 가장 먼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망, 시장, 정보, 기술에 대한) '접근'문제가 중요하게 된다.

일치된 국제행동은 오도된 범세계화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이다. 국가적 결정권자와 국제조직이 국제 VANs 과 국제 VAN 서비스의 초미의 관심사를 다루는 방법은 이러한 넓은 관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 1〉

#### UR 각료선언 PART II(1986년 9월 20일)

#####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상—

각료들은 다자간 협상의 부분으로서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상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분야에서의 협상은 서비스무역에 관한 원칙과 규칙의 기본협상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는 투명성과 점진적 자유화의 조건하에서 그러한 무역의 확대의 관점에서, 그리고 모든 무역당사국들과 개도국들의 발전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개별부문에 대한 규율의 구체화를 포함한다. 기본협정은 서비스에 적용하는 국내법과 규제의 정책목적을 존중할 것이고 유용한 국제조직의 운용을 고려할 것이다.

GATT 절차와 관행은 이 협상에 적용할 것이다. 서비스에 관한 협사그룹(GNS)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구성되었다. 이 선언하에서 협상참여는 PART I 하에서와 동일한 국가들에게 열려있다. GATT 사무국지원이 GNS에 의해서 결정된 다른 조직으로부터의 기술적 지원과 함께 제공될 것이다.

GNS는 TNC에 보고할 것이다.

### 〈참고 2〉

#### UR 중간 검토(몬트리올 1988.12.5-9 / 제네바 1989. 4.5-8 TNC에서 채택된 결론)

#####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상—

각료들은 푼타델 에스테에서 동의한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상대상을 재확인하였다. 각료들은 실질적인 절차가 이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각료들은 이러한 협상대상의 달성을 향한 진전된 노력을 위해 중요한 기초라고 생각한 MTM·GNS/21에 포함된 TNC에 대한 GNS의 보고를 주목한다. 이 노력은 수평적이고 상호관련된 상태로 진행할 것이다.

각료들은 GNS 보고서의 7, 8항에 있는 기존의 국제적 협정과 규율에 근거한 이해에 주목한다.

정의에 관한 작업은 기본협정이 공급자에게 필수적인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소비자의 국경간 이동, 생산요소의 국경간 이동을 포함한 서비스무역을 포괄할 수 있는 기초위에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좀더 검토될 것이다.

- (a) 서비스와 결재의 국경간 이동
- (b) 목적의 특정성
- (c) 거래의 독자성
- (d) 기간의 제한성

각료들은 사전적인 근거에서 서비스무역의 어떤 부분을 배제함이 없이 포괄범위가 모든 참여국을 위한 이익의 균형을 허용하고, 개도국에 대한 수출이익부문이 포함되어야 하며 어떤 부문은 상당히 신중한 고려로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배제될 수 있고, 기본협정이 참여국들에게 이익부문의 가장 넓은 영역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과 일치한 다자간 기본협정하에서 부문 포괄범위에 대한 협정에 도달하기 위하여 작업이 진행 되는 것에 동의한다.

각료들은 서비스무역에 관한 기본협정을 구성하는 개념, 원칙, 규칙이 최종적으로 합의되기전에 이들 개념, 원칙, 규칙들이 그들의 적용성과 개별부문에 대한 적용의 의미와 기본협정에 의해서 커버되는 거래유형

에 관하여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각료들은 서비스무역에 관한 원칙과 규칙의 기본협정의 구체화에 관한 협상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다음 개념, 원칙, 규칙들이 유용하게 고려된다:

(a) 투명성

유용성에 관한 충분한 규정을 통해서 계약국들이 당사자인 서비스무역에 관련한 국제적 협정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법률, 규제, 행정지침에 대한 정보는 공표한다. 협정은 이러한 관점에서 어떠한 뚜렷한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되어야 한다.

(b) 점진적 자유화

협상은 부문과 수단에 대한 원칙의 적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국내정책목표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서비스무역의 점진적 자유화를 제공하는 다자간기본협정의 규칙, 양식, 절차를 확립하여야 한다. UR 후에 진전된협상을 위해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별한 절차가 특별한 부문의 자유화를 위하여 필요할 수 있다.

이 규칙, 양식, 과정의 목적은 이회담과 향후 협상에서 개별 계약국들의 발전수준을 고려한 점진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내국민대우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시장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모든 법률, 규제 및 행정지침의 무역에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켜야 한다.

점진적 자유화를 위한 규칙, 양식, 절차에는 개별 개도국들로 하여금 보다 소규모분야의 개방, 자유화시키는 거래형태를 소폭으로 유지, 그들의 발전상황에 맞추어 시장접근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융통성을 부여한다.

(c) 내국민대우

기본협정의 여타조항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내국민대우는 어떠한 계약국의 서비스 수출품 및 / 또는 수출자도 여타 계약국시장에서 법률, 규제 및 행정관행에 관하여 국내서비스 또는 국내시장의 서비스제공자보다 못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다.

(d) M. F. N. / 무차별주의

다자간 틀은 M. F. N. / 비차별에 대한 대책을 포함할 것이다.

(e) 시장접근

시장접근이 계약국에게 유용할 경우는 기본협정의 다른 조항과 일관성을 유지한 기초위에서이며 무역의 정의와 일치하여 외국서비스는 선호된 전달형태에 따라서 제공될 수 있다.

(f) 개도국 참여증대

기본협정은 세계무역에서의 개도국 참여증대 및 서비스 수출확대를 도모하고 특히 국내서비스제공능력, 효율성, 경쟁력 등의 강화를 통해 가능해진다.

규정들은 특히 분배채널과 정보네트워크에 대한 향상된 접근을 통해서 개도국의 서비스수출에 대한 효과적인 시장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이 규정들은 개도국에 대한 수출이익부문의 시장접근의 자유화를 가능하게 한다.

개도국의 서비스수출을 위하여 시장접근의 자동적인 자유화가 허용된다.

특수한 경제적 사정과 발전, 무역, 재정적 궁핍의 견지에서 협상안을 수용하는데 있어 저개발국의 심각한 어려움에 대해 특별한 고려를 한다.

(g) 보호조항과 예외조항

보호조항 즉, 수지균형조항 그리고 예외조항 즉, 안보와 문화정책목적에 근거한 조항에 대해 규정에 대해 진전된 협상이 필요할 것이다.

(h) 규제상황

정부는 즉, 어떤 부문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소비자보호목적과 거시경제정책을 이행하면서 자국의 시장내에서 기업들의 활동에 대한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서비스부문을 규제하는 것이 인정된다. 다른 국가들에서는 서비스규제의 발전정도에 관하여 불균형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국가, 특히 개도국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권리가 인정된다. 이것은 기본협정 하에서 조항과 일치한다.

참여국들이 추진하기를 원하는 새로운 사고와 개념뿐만 아니라 MTN · GNS/ 21에서 언급된 다른 요소들 또한 고려될 것이다.



**(향후 작업)**

향후작업은 다음과 같다.

(a) 1989년 4월 20일경 부문 참고리스트를 사무국이 편집. 이과정은 참가국의 동의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b) 1989년 5월을 목표로 참가국들에게 관심부문리스트를 제출할 것을 권유.

(c) 특별부문과 특수거래에 대한 개념, 원칙, 그리

고 규칙의 의미와 적용성을 검토하는 절차가 리스트가 유용해짐에 따라 시작된다.

(d) 국제적 훈련과 협정에 필요한 그리고 정의화 통계에 필요한 진전된 작업.

GNS는 1989년말경까지 모든 부문의 다자간협정의 완결과 UR 기간말의 타결까지 진행되는 협상들을 인정하는 초안을 위한 필요한 요소들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한다.